



첫 벼베기 5일 전남도내에서 처음으로 벼를 수확한 순천시 해룡면 매안마을 농민들이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해룡면 벼베기는 다른 지역보다 한달이상 빠른 것으로 '하늘아래 첫 쌀 순천함쌀'이라는 브랜드로 판매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수도권 대형병원들 앞다퉀 몸집불리기 지역병원 환자 유출 '비상'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 수도권 대형병원들이 잇단 몸집 불리기에 나서면서 광주·전남의료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소위 '빅5'라고 불리는 대형병원들이 앞다퉀 암센터 개원과 병원 신·증축에 들어가면서 대형병원 간의 '환자 확보 전쟁'이 지역병원의 환자 유출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5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 국제경쟁력 강화에 사활을 건 이른바 '빅5'를 비롯한 수도권 대형병원들이 외형 확장 대열에 합류하면서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5천여 병상 이상이 추가로 생겨날 전망이다.

서울아산병원은 지난 4월 800병상 규모의 신관을 개원했다. 현재 2천 병상 규모로 국내 최대 규모인 아산병원은 신관 개원으로 전체 병상이 3천 개에 육박해 아시아 최대 병원으로

자리매김했다. 아산병원은 내년 초 665개 병상 규모의 암 센터까지 갖출 예정이다.

가톨릭의료원이 서울 서초구에 신축중인 '서울성모병원'은 무려 1천 200병상 규모로 의료원 산하 8개 병원을 통합해 국제경쟁력을 키운다는 방침이다.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올해 초 병상 652개 규모의 암 센터를 오픈했고, 서울대병원도 내년 1월 암 센터 개원을 준비 중이다.

현재 전남대병원과 화산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등 광주·전남지역 전체 병상 수는 3천996개로, 규모나 장비 등 의료환경이 열악해 환자 유출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난 6월 보건복지가족부가 공개한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67개 의료기관 가운데 절반 이상이 B~C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남지역 의료기관이 보유한 방

사선 치료기기와 혈관조영장치 등 의료 장비 대수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대병원의 경우 분원과 화산병원의 외래·입원환자가 지난해 1백72만9천1명으로 매년 5% 정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도권 병원들의 몸집불리기에 2009년부터 감소 추세가 돌아설까 우려하며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다른 병원들도 환자 유출과 수입감소를 걱정하며 묘안을 짜내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지역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해마다 정부에서 진료횟수, 수술건수 등을 발표해 마치 환자 수가 많은 수도권 대형병원이 진료까지 잘하는 것으로 지역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1등만 살아남을 수 있게 한 의료정책으로 지역의료계는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감사원, 정연주 KBS사장 해임 요구



감사원은 5일 KBS 부실 경영과 인사권 남용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KBS 정연주 사장(사진)에 대한 해임을 이사장에게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관련기사 5면>

감사원은 이날 감사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KBS 특별감사 결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일 열릴 예정인 KBS 임시이사회에서 정 사장 해임권고 결의안이 상정돼 처리될 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전남 지난해 출생아 12% 급증

국제결혼 영향 2년 연속 증가...성비 불균형은 심화

국제결혼 증가와 황금돼지해 등의 영향으로 전남의 출생아 수가 크게 늘고 함께출산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남은 타 시·도에 비해 남·여아의 성비 개선이 더디게 진행되는 등 광주와 함께 남아 선호사상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통계청이 내놓은 '2007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의 출생아 수는 1만7천746명에 달한다. 이는 2006년에 비해 12.3% (1천937명) 늘어난 것으로,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전남지역의 출생아 증가는 국제결혼 급증 속에 2006년 쌍춘년과 2007년 황금돼지해 등의 영향으로 결혼과 출산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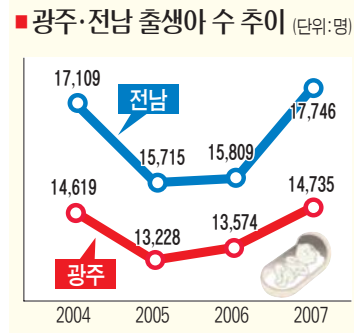
전남은 2006년부터 2년간 한국 남

편과 이주여성과의 국제결혼이 3천 89건에 달할 만큼 급증세를 보였다.

이주여성들의 경우 첫 아이의 출산 시기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점에서 지역 내 출산 지표 개선에 주된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실제 전남은 지난해 첫째 아이를 낳은 산모 가운데 81.7%가 결혼 2년 미만의 여성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국 평균(72.9%)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타 지역에 비해 조기 출산 비중이 월등히 높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전남은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도 크게 높아졌다. 지난해 전남의 합계출산율은 1.53명으로, 전국 평균(1.26명)을 크게 웃도는 한편 16개 시·도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



했다. 또 보성군(2.33명), 강진군(2.26명), 영암군(2.11명) 등의 합계출산율이 전국 상위 1~3위를 차지할 만큼 출산 관련 지표가 크게 개선됐다.

하지만 전남은 전통적인 남아 선호 사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남의 출생성비(여아 100명당 남아 수)는 107.6명으로, 광주(108.0명), 강원(108.4명) 등과 함께 성비 불균형이 심화됐다.

/최경호기자 choice@

광주용봉2 Humansia 5년임대 입주자 모집

신방형수 2008년 8월 4일~6일
 방 크기 81㎡형 65호, 112㎡형 196호
 전분주택 7월 19일 개관(시범지구내)
 임대문의 건보 주택 02-361-6801
 도시개발사업팀 0330-0668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日報가 인재를 찾습니다 제 57기 수습기자 모집

권위와 전통의 광주일보가 수습기자를 공개 채용합니다. 호남 대표 정론지 광주일보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속에 명석한 판단력과 창의적 사고력으로 저널리스트의 길을 함께 걸어갈 젊은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긍지와 보람의 광주일보와 함께 미래를 개척하십시오.

- 1. 모집대상**

모집부문	인원	자격 및 대상
수습기자	○명	197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석사학위 소지자는 1976년 이후 출생자도 가능)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2008년 8월말 졸업예정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자는 병역필자
- 2. 제출서류**
 - ▶ 입사지원서 1부
 - ▶ 소정 양식 다운로드 www.kwangju.co.kr 명함판 사진 부착
 - ▶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1장 이내)
 -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대학원 졸업자는 학부성적증명서 포함)
 - ▶ 자격증 및 면허증·외국어 성적증명서 사본(소지자에 한함)
- 3. 전형방법 및 일정**

전형방법	일정
입사지원서 배부 및 접수	8월 6일~18일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8월 21일
필기시험(국어/영어/상식/논문)	8월 24일 오전 9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8월 25일
면접	8월 27일
최종합격자 발표	8월 29일

 - ▶ 접수처: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 광주일보사 총무부 (방문접수·우편접수는 18일 소인분까지 유효)
 - ▶ 필기시험 장소: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 4. 합격자 발표**
 - ▶ 각 전형별 본보 지면 및 광주일보 홈페이지(www.kwangju.co.kr)

부시 방한, 오늘 정상회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5일 오후 6시20분경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1박 2일간의 방한 일정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3면>

부시 대통령은 이날 별다른 일정 없이 휴식을 취한 뒤 6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회담에서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 ▲북핵 검증과 비핵화 공조 방안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대책 ▲이라크와 아프간 파병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정상은 특히 '한국 대학생 미국 연수 취업 프로그램(WEST)'에 합

유망직업 전망 56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피부과학, 식물 유기자료를 주춧돌로

TOPE